

영 화

3D 판타지 '나니아 연대기: 새벽 출정호의 비밀'

해리포터 마지막 시리즈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

바다거북의 모험, 애니메이션 '새미의 어드벤처'

추운겨울 가슴 따뜻한 영화 '헬로우 고스트'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영화가 쏟아지고 있다. 스펙터클한 3D영화로 무장한 판타지 영화도 있고, 가슴 따뜻한 드라마도 있다. 귀여운 아기 거북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도 관객들 만날 채비중이다.

지난 8일 개봉한 '나니아 연대기: 새벽 출정호의 비밀'은 판타지 문학의 금자탑으로 불리는 C.S 루이스의 원작을 스크린에 옮긴 작품이다. '나니아 연대기: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나니아 연대기: 캐스피안의 왕자'에 이어 세번째 찾아온 이번 작품은 '나니아 연대기' 7부작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시리즈가 원작이다.

'해양 판타지'를 표방한 이번 시리즈는 방에 걸려 있는 바다 그림 속에서 갑자기 바닷물이 쏟아져 나오고, 주인공들이 나니아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망망대해에서 꼬마 주인공들은 새벽 출정호를 타고 실종된 일곱명의 영주를 찾아 해매던 캐스피안 왕자 일행을 만나게 되고 신나는 모험에 나선다. 시리즈 전작과 달리 '07 언리미티드', '이너프'의 마이클 애플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3D로 제작됐으며 23일부터는 더빙판도 상영된다.

설명이 필요 없는 판타지 영화의 전설 '해리

포터'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 16일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은 '학교'에서 사건이 전개되던 전작들과 달리 교장 덤블도어의 죽음 후 학교를 벗어난 아이들이 새로운 무대에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성년이 되면서 해리를 지켜주던 수호 마법이 사라지고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볼드모트 영혼의 조각이 보관된 호크룩스를 찾아 파괴하기 위한 모험을 떠난다.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 새 친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화해하며 성장해 나간다.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해리포터와 혼혈왕자'의 데이비드 예이츠 감독이 다시 메가폰을 잡았으며 대니얼 래드클리프, 엠마 왓슨 등 전작의 배우들도 그대로 출연한다. 원작자인 J.K 롤링은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시리즈 2편은 내년 여름 3D로 개봉 예정이다.

3D 애니메이션 '새미의 어드벤처'는 바다 거북의 모험을 그린 작품이다.

바다 거북이가 앞에서 깨어나 바다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옛일을 회고하는 순간까지 순차적으로 보여준다.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태어난 바다 거북 새미

는 앞에서 깨어나자마자 운명적으로 셀리를 만나 함께 위험에서 탈출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셀리와 헤어지게 되고 홀로 바다로 나가게 된 새미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주인공 새미 목소리를 맡은 빅벤의 대성을 비롯해 그룹 '(x)'의 설리와 개그맨 윤형빈이 목소리 출연한다. 설리는 드라마 '서동요'와 영화 '바보' 등에 출연했던 아역배우 출신이다. 아이맥스 영화를 주로 만들었던 벤스타센 감독 작품으로 아름다운 빛깔의 물고기와 문어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할리우드 판타지 영화의 대항마로 나서는 '헬로우 고스트'(22일 개봉 예정)는 가슴 따뜻한 가족영화다.

2007년 겨울 '과속 스캔들'로 8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 흥판을 날린 차태현이 주연을 맡아, 특유의 코믹 연기를 보여준다.

죽는 게 소원인 외로운 남자 상만 앞에 어느 날 귀신이 나타난다.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은 변태귀신, 꼴초귀신, 울보귀신, 초딩귀신들은 소원을 들어달라며 상만을 괴롭히고, 귀신과 그들 때문에 죽지도 못하게 된 상만은 결국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이, 예상치 못했던 생애 최고의 순간과 마주하게 된다.

시사회에서 웃음보다는 '눈물'과 '감동'에 방점을 둔 따뜻한 영화라는 평을 받았다.

'바르게 살자', '퀴즈왕' 등 장진 감독의 영화와 드라마 '대물' 등에서 감칠맛 나는 연기를 선보인 장영남이 '울보 귀신'으로, 영화 '의형제', '영화는 영화다'의 고창석이 '꼴초귀신'으로 함께 호흡을 맞춘다. 드라마 '글로리아'에 '어진' 역으로 출연중인 아역배우 천보근이 '초딩귀신' '굿모닝 프레지던트'의 조연 이문수가 '변태귀신'이다.

'해운대'의 감예원이 차태현과 러브라인을 형성하며 김영탁 감독이 직접 각본을 썼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판타지·코미디·애니메이션... 가족영화 '봇물'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온가족이 함께 보세요



스타박스 24시 사우나·찜질방

땀만 빼는 찜질방은 이제 가라!

스타박스가 광주 시민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명소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사우나·헬스·에어로빅·요가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Multi-Plex Fitness System' 으로 잃었던 '당신의 젊음' 을 되찾으세요!



| 회원가입 · 상담문의 | 062-383-7272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3-4 |
 (내비게이션에서 '스타박스 사우나' 주소를 검색하세요)